

회 요 세 평



문호성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 경제조사팀장

한 장 넘긴 달력에서, 아침 뉴스의 날씨 정보에서, 출근길에 마주치는 사람들의...

미래,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

로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면 안된다'는 것이다. 당장은 공공기관과 300인 이상 사업장부터 적용이 되지만 2021년 7월까지의 모든 사업장에 순차적으로 적용된다.

근로시간 제한 등 사회적 변화

그 동안 우리나라의 근로시간은 세계 최고의 수준이었음은 새삼 더 말할 나위가 없다. 또 이런 장시간 근로와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이 고도의 경제성장을 달성할 수 있었던 중요한 요인이라는 시각도 있다.

가. 심지어는 전쟁도 마다하지 않았잖는가. 주 5일근무제 시행 때도 많은 우려가 있었지만 이제 다시 그때로 돌아가자고 하면 찬성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지 굳이 물어보지 않아도 될 것이다.

다만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을 제대로 준비하고 있는지는 짚어볼 필요가 있다. 근로시간이 단축되면 근로자는 좀 더 여유로운 여가시간을 가질 수 있지만 대신 장시간의 초과근무에서 얻을 수 있었던 소득은 포기해야 한다.

될 때까지는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동안 겪어야 하는 불편과 손해를 인내하고 참고 기다릴 줄 아는 마음가짐도 준비해야 한다.

새로운 혜택과 변화 댓가 준비

복지도 마찬가지로이다. 없던 사회안전망을 확충한다든지 더 높은 수준의 복지를 누리려고 한다는 것은 그만큼 세금을 더 많이 내야한다는 것을 뜻한다.

사 설

국민에 희망주는 '젊은 태극전사들'

요즘 우리 국민에 가장 큰 즐거움은 '젊은 태극전사들'의 활약상을 보는 것이다. 폴란드에서 벌어지고 있는 20세기 최후의 월드컵에서 우리 선수들이 눈부신 투혼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않은 불굴의 기상을 보여 줬다. 예선·16강전에서 그랬지만 8강 세네갈과의 경기에서는 그 진면목을 유감 없이 보여주었다.

선제적 폭염대책 재난 막는다

지난 여름의 폭염 악몽에 광주시가 효과적인 대응·협력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전문가와 시민들의 의견을 듣는다.

간이다. 무더위에 약한 노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무더위 쉼터, 폭염 저감 시설인 그늘막 설치 등 생활 전반에 온도를 낮추기 위한 맞춤형 대책이 요구된다.

기고



김형식

현대기아자동차 홍보팀 차장

최근 기아차에서 7월 국내 출시 예정인 '하이클래스 셀투SUV' 신차의 차명이 '셀투스(SELTOS)'로 확정되어 공개되었다.

자동차에 생명 불어넣어 주는 것은 바로 '이름'

소형 SUV를 연상시킨다. 기아차는 차명 '셀투스'를 통해 새롭게 선보일 글로벌 소형 SUV가 갖춘 대담한 스타일과 차별화된 주행성능 등을 강조할 방침이다.

자동차 회사에서는 신차를 탄생시킬 때 차명에 대해 무척이나 고심한다. 적어도 차명이 신차의 이미지와 성격을 대변하고 거기에 더해 고객에게 어필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Sedona)'이다. 카니발이 외국에서는 카니발리즘이라는 부정적인 단어와 비슷해, 미국 애리조나 고급 휴양도시인 '세도나'로 이름을 바꾼 것이다.

특지광장

최근 주택화재 및 도시형 생활주택 등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발생률이 높아지고 있다.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단독주택에도 자율적인 안전 관리가 필요하다.

화재예방 기본은 기초소방시설

소화 시설·단독경보형감지기는 화재 시 경보를 울려 줌으로써 밖으로 대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피난 시설이다.

대피가 지연돼 다수의 사망자가 발생하는 것이다. 이러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화재인지와 초기 소화에 큰 역할을 하는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의 설치는 필수적이다.

해야 한다. 소화기 설치방법은 층마다 잘 보이는 곳에 보행거리 20m 이내마다 1개 이상 비치하고, 그늘진 곳에 보관해야 한다.

10대 무면허 교통사고 대책 절실

기시수첩

10대 청소년들의 무면허 교통사고가 잇따라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지난 7월 9일 오전 7시 12분께 영암군 삼호읍 한 편도 3차선 도로에서 고교 3학년 학생이 운전 중 기어수를 틀어막아 동승자인 친구가 그 자리에서 숨지고, 나머지 4명은 중경상을 입고 병원서 치료 중이다.



고광민 사회부 차장

소년들의 무면허 운전을 쉽게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돼 더욱 우려스럽다. 스마트폰 앱을 이용하면 본인 확인 절차 없이도 차를 운전할 수 있어 이를 악용하는 청소년들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경찰 및 도로교통안전공단 등의 집계 따르면 청소년 무면허 운전 교통사고는 매년 1,000여 건 이상씩 발생하고 있다. 지난 2012-2016년 동안 청소년 무면허 운전 교통사고는 5,578건이 발생했으며 이 가운데 135명이 사망하고 7,655명이 중경상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각에선 청소년들이 무면허 상태 일 수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현행 운전면허취득 최소연령을 낮추는 등, 제도개선 측면에서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

Table with 2 columns: 생활정보전화 and 긴급전화. Lists various phone numbers for services like fire, police, and medical assistance.

Table with 2 columns: Contact information for Jeonnam Daily newspaper, including phone numbers for circulation, advertising, and subscription.

*외부 필자의 글은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